띠링.

불쾌한 핸드폰 알람에 눈이 떠졌다.

대체 왜 아침부터 문자를 보내는 거야. 오늘은 주말이니까 좀 자게 내버려 두면 어디가 덧나냐고.

핸드폰을 진동모드로 바꾸고 폭신한 이불에 얼굴을 파묻었다. 나한테 올 문자라고 해봤자 스팸일 게 뻔하다.

아침부터 나한테 올 연락이라면 그 사람이겠지. 학생한테 끈질기게 대출을 권하는 팀장 미영 씨.

가끔 연락이 오면 안부를 물어보는 기분이 들길래 차단은 안 했는데. 한 번만 더 이러면 미영 팀장. 당신도 차단이야.

[ 우웅 ]

“.......”

[ 우웅 ] [ 우웅 ]

핸드폰 진동이 이불을 타고 전해져온다. 이불이 얼굴을 간지럽히는 기분에 자꾸 잠이 달아난다.

[ 우웅 ]

아오.

넌 진짜 내가 스팸 등록하고 만다.

“응?”

스팸 문자가 아니었다. 어제 저장한 은혜 선배가 보낸 메시지다.

[ 혹시 오늘 1시까지 학교로 와줄 수 있어? ]

[ 어제 설명해주지 못한 것들 좀 얘기해주려고. ]

[ 시간은 1시까지 와줄 수 있을까? ]

[ 만약 힘들면 다음으로 미뤄도 괜찮아 ]

< 아뇨 1시면 좋아요. 그럼 1시까지 학생회실로 갈까요? >

[ 응. 고마워. 재밌는 시간 보내. ]

< 그게 무슨 소리예요? >

[ 후후. 비밀이야. ]

몇 번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채아람은 그 이후로 답장이 없었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알겠지. 1시까지면 슬슬 준비해서 나가야겠네.

나는 따듯한 이불을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

학생회실 앞에서 시간을 확인했다.

12시 40분.

훗. 2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상대를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인싸의 상식이잖아?

...라고 인터넷에서 배웠다.

그래도 20분은 너무 일렀으려나. 학생회실 안에서 핸드폰이나 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은혜 선배도 약속보다 일찍 나올 이미지라 그리 오래 안 걸리겠지.

<끼익>

하지만 학생회실 안에는 먼저 손님이 와 있었다.

“뭐야!? 왜 벌써 왔어!”

한소원이 의자에 앉아 휴대용 게임기 화면을 재빨리 껐지만…. 이미 보고 말았다.

장비 없이 팬티만 걸치고 있는 한소원의 캐릭터를.

“…봤어!?”

네. 봤습니다. 기괴한 얼굴에 피부가 분홍색인 것까지 봤습니다.

“응? 뭐를?”

그래도 각자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못 본 척하기로 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 못 봤으면 됐어.”

한소원은 게임기를 가방 안에 집어넣고 나를 째려봤다.

“근데 왜 이리 일찍 왔어? 아직 시간 한참 남았잖아.”

“어쩌다 보니 일찍 나와서. 너는?”

“난 오늘 학교 봉사활동 신청한 거 있어서 끝나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주말인데도 교복 차림이었구나.

“그런데 웬일로 은혜 선배가 아직 안 왔지? 맨날 30분은 먼저 오던데.”

<삐링>

“아, 선배다. 오늘 좀 늦는다고 보냈나….”

핸드폰 화면을 보는 한소원의 표정이 쩌저적 굳었다.

“아아! 또 이런다!!”

“또?”

“저번에 아람이 때도 이래 놓고!!”

한소원은 핸드폰을 돌려 내게 보여줬다.

[ 소원이는 부끄럼이 많으니까, 둘이 좀 친해졌으면 해서. 후후. ]

[ 후배끼리 친해지면 좋잖아? 같은 반이니까 말도 잘 통할 거야. ]

[ 혹시 잘못 설명해도 내가 바로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줘. ]

[ 그럼 힘내! ]

“혹시 은혜 선배 우리 둘만 부른 거야?”

“그래! 저번에 아람이 들어왔을 때도 이랬어!”

사악하게 후후 웃고 있는 은혜 선배의 얼굴이 보인 것 같았다.

“하아아~”

한소원이 한숨과 함께 풀썩하고 책상에 쓰러졌다.

정적과 함께 내 아싸 레이더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나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대와 단둘이라니. 여기가 지옥인가.

그냥 다음에 다 같이 있을 때 듣겠다고 해야겠지…?

맞아. 오늘은 나도 바쁘다고 말하고 돌아가자.

“야.”

“응?”

“나 설명 잘 못 해.”

한소원은 엎드린 채로 눈만 나를 올려다보고 중얼거렸다.

“그니까 나한테 들어도 횡설수설하기만 할 거고.”

“너도 이해하기 힘들 텐데.”

한소원은 눈만 돌리곤 말을 끝마쳤다.

“...그래도 듣고 싶으면 얘기해줄 수는 있어.”

돌아간 고개의 볼은 약간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자기도 부끄러우면서 먼저 말을 건네주다니. 나라면 절대로 못 할 일이다.

“응. 듣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한소원의 용기에 기대기로 했다.

“진짜지? 나중에 뭐라 하기만 해봐!”

엎드려있던 한소원이 자세를 똑바로 했다. 책상에 눌린 볼이 유난히 빨갛다.

“그럼 뭐부터 설명해야 하지.”

“으음. 미지 잡는 이유는 래솔 선생님이랑 은혜 선배 있을 때 말하는 게 좋겠고.”

“그거 말고는...아. 등불이 좋겠다.”

“등불?”

“응. 미지와 싸울 때 쓰는 무기야.”

“미지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거든. 상처도 안 나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 거야.”

“어제 소원이가 단검 쓰는 건 봤지? 그게 소원이의 등불이야.”

“그리고 내 등불은 이거.”

한소원이 손을 펼치자, 빛을 머금은 트럼프 카드 뭉치가 나타났다.

“등불은 미지를 보게 되면 생기는 무기야. 어디서 온 건지는 미지처럼 모르지만.”

무심한 표정으로 한 손으로 카드를 섞는 모습은 마술사 같았다. 카드가 손가락 사이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생기고 나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돼. 신기하지?”

카드 1장을 튕겨 내 앞으로 보냈다. 카드에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조커가 혀를 내밀고 있었다.

“뭐, 대충 설명하면 이래. 이해했어?”

“응. 그런데 미지를 본 사람은 등불이 생긴다고 했잖아?”

“맞아. 미지를 보고 난 뒤에 어느샌가 생겨.”

“그럼 내 등불은 어딨어?”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제 미지 봤을 때 생겼을 것 아냐.”

“모르겠는데...”

“그걸 왜 몰라! 분명히 어디 생겼으니까 주머니라도 찾아봐!”

“주, 주머니?”

뒤늦게 바지에 주머니를 넣어도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 지갑과 핸드폰.

아, 길에서 붙잡혀서 받은 무제한 뷔페 광고지도 있다.

“혹시 이거야?”

“장난해? 그거겠냐고! 뭐 있을 것 아냐!”

“진짜 없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어디 있긴 있을….”

한소원이 화내는 걸 멈추고 내 손을 노려봤다.

“야. 그거 네 거야?”

왼손 검지에 작은 하얀색 반지가 끼워져있다. 산 적도 본 적도 없는 반지는 은은히 빛을 뿜고 있었다.

“이 반지가 내 등불이야?”

“아마도. 살짝 빛나는 걸 보면 네 등불 맞을 거야.”

“그럼 난 반지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거야?”

도무지 상상이 안 간다. 화려하게 손가락마다 끼울 수 있게 되나?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시험 삼아 빼보려고 반지를 손에 잡았다. 그러자 반지가 작게 빛나며 녹아내려 왼손을 감쌌다.

반지가 흰색 장갑으로 바뀌고 손을 완전히 덮은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이 다시 보였다.

거미 생김새의 미지가 채아람에게 쓰러지고, 조각조각 나뉘어 사라진다.

그중 사라지지 않고 남은 조각이 있었다. 바닥에 덩그러니 홀로 떨어진 파편. 미지의 핵심처럼 보이는 조금 큰 조각.

반지가, 아니 장갑이 그걸 찾고 있었다.

“미지 조각이 필요해.”

“뭐?”

“미지 조각. 미지가 사라졌을 때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아, 그거. 옛날에 뭔가 해서 몇 개 챙겨두긴 했는데. 기다려 봐.”

한소원이 서랍장을 뒤지더니 미지 조각 5개를 가져왔다.

“이거 말하는 거지?”

“응. 고마워.”

한소원이 건넨 미지 조각을 왼손으로 받자, 장갑이 반짝였다.

파라락.

셀 수 없을 만큼 작게 나뉜 미지의 조각들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뭐야? 왜 갑자기 쪼개졌어?”

한소원의 질문을 무시하고 머리를 번뜩였다.

내가 뭘 만들 수 있을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 칠교놀이를 하는 것처럼 조각들로 완성품을 상상해본다.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은…. 이거려나.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운 집중력으로 조각을 모아 형태를 만들었다.

장갑이 때때로 반짝이며 필요 없는 조각들을 뭉쳐, 내가 원하는 조각을 만들어낸다.

나는 장갑에 손을 맡기고, 머릿속 그림을 완성해갔다.

[ 조합 튜토리얼 ]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 어느새 그 많던 조각도 전부 사라지고, 책상 위엔 완성품만이 놓여있었다.

조그마한 무채색의 머리끈.

장갑은 할 일을 끝냈다는 듯이 다시 하얀색 반지로 돌아와 왼손 검지에 끼워져있었다.

“야. 괜찮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땀도 흘리길래 놀랐잖아!”

한소원의 말을 들으니 몸이 피곤한 게 느껴졌다. 손가락만 움직였는데 긴 시간 전신운동을 한 것처럼 피곤하다.

“으, 응. 괜찮아. 약간 피곤한 거야.”

“...그래? 괜찮으면 됐고.”

“그래서 만든 게 이거야?”

“신기하네. 어떻게 조각이 머리끈이 된 거지?”

한소원이 머리끈을 들어 이리저리 살피더니, 좌우로 힘껏 당겼다.

“끄으응…. 원래대로 돌아가지도 않네.”

“혹시 조각들 필요한 거였어?”

“아니? 가끔 미지에게서 떨어지길래 주워둔 거야. 쓸 데도 없어서 서랍에 넣어뒀지.”

“그건 그렇고. 자.”

한소원은 내게 머리끈을 내밀었다.

“한 번 써봐.”

“내가?”

“응. 네가 만든 거잖아.”

“그, 그건 그런데….”

“주인이 먼저 써봐야지.”

내가 머리핀이라니…. 별수 없이 건네받은 머리끈을 앞머리에 묶었다.

“풉. 너 되게 안 어울린다.”

안 봐도 알겠으니까 굳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때? 달라진 거 있어?”

“...그냥 머리끈인데?”

딱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을끈이 묶고 있는 게 끝이다.

“그래? 어디 한 번 줘봐.”

한소원은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머리끈으로 묶었다.

“…응?”

“뭔가, 좀…. 다른데?”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한소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를 빙빙 돌리고는,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다. 양손을 붕붕 휘두르더니 한소원의 눈이 반짝거렸다.

“야! 이거! 몸이 잘 움직여!”

“뭐라고 해야 하지? 몸이 평소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야!”

“내가 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다시 한소원에게 받아 머리끈을 꽂고 몸을 움직여봤지만 마찬가지다.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둔감한 건가? 진짜 모르겠어.”

“그래? 난 확실히 느껴지던데.”

“그러면 네가 쓰는 게 맞겠다.”

한소원에게 머리끈을 건네줬다.

“어차피 머리끈이라 내가 쓰고 다니지도 못하잖아.”

“어, 진짜!? 그럼 이거 내가 써도 돼? 무르기 없다?”

한소원은 내가 만든 머리끈을 재빨리 주머니 안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등불이 이런 능력이라니. 나 처음 봤어.”

“나도 그렇고, 학생회 멤버들 등불은 무기로 쓸 수 있었는데. 네 건 무기랑은 완전 다르잖아.”

“직접 싸우는 데 쓰긴...”

“당연히 힘들지. 너 아까 집중하는 동안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 듣지도 못하더라. 그걸로 어떻게 미지랑 싸우려고?”

“그, 그렇긴 하네.”

“이런 식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어울릴 것 같아. 등불을 미지 앞에서 썼다간 도망치지도 못할걸.”

정곡을 찔려 고개를 숙였다. 확실히 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등불이다.

미지와 맞서 싸우는 나를 상상했는데 그냥 돕는 역할이라니.

...나도 함께 싸우고 싶었는데.

“야, 뭘 주눅 들고 그래. 파티엔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지!”

한소원이 내 팔을 툭 쳤다.

“탱커는 어그로 끌면서 메인 딜러 지켜주기, 딜러는 포지션 잘 잡고 꾸준히 딜 넣기. 서포터는 팀원 게이지 관리랑 타이밍 맞춰 버프 걸어주기.”

“근데 서포터가 딜 넣겠다고 앞 라인 서봐. 파티가 굴러가겠어?”

한소원은 퉁명스럽게 콧바람을 내곤 고개를 돌렸다.

“...너도 우리 파티원이니까 빚진 것처럼 굴지 마!”

투덜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한소원의 말은 따듯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솔직하게 본심을 물었다.

“그, 있지.”

“응?”

“게임 좋아하는구나?”

한소원의 눈동자가 갑자기 흔들렸다.

“.....하, 참 나. 내가? 게임을?”

“아닌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잠깐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좋아하진 않거든?”

“나도 게임 좋아해.”

“…진짜?”

“응.”

“...무슨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도 분야가 많잖아. RPG야, FPS야 아니면 뭐. 어떤 종류냐고.”

좋아하는 게임을 떠올렸지만, 무슨 게임인지 생각하니 딱 떠오르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 게임 이름을 말했다.

“나는 스도쿠 좋아해.”

“뭐?”

“그, 스도쿠라고. 칸에 숫자 채우는…. 건데….”

한소원의 정색한 표정에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줄어들었다. 뭐지. 잘못 대답한 걸까.

“스도쿠?”

“스, 도, 쿠?”

“그건 게임이 아니거든!!”

쿵.

한소원이 오른발을 굴러 큰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만큼 나한테도 충격적이었다.

스도쿠가…. 게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재밌는데?

“굳이 따지자면 퍼즐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나한테는 아니야!”

“하아. 야, 앉아봐! 게임이면 적어도 컨트롤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또!”

...그 뒤로 한소원의 게임 강의를 한참 듣고서 풀려날 수 있었다.

한소원. 게임 엄청나게 좋아하는구나.